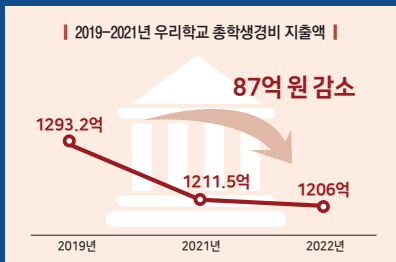


우리신문은 최근 3개년 공시한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운영과 교육여건을 연관 지어 대학평가 부진 원인을 짚어봤다.



대학주보

논술 고사 응시율 56.5%

박희원 기자 rotdfxy@khu.ac.kr
김권수 기자 okb8888@khu.ac.kr

2023학년도 수시전형 논술 고사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진행됐다.

입학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논술우수자전형 지원자는 서울캠퍼스(서울캠) 23,398명, 국제캠퍼스(국제캠) 7,740명으로 최종 경쟁률은 서울캠, 국제캠 각각 92.4대 1, 33.0대 1로 나타났다. 이중 논술 고사 응시자는 서울캠 13,105명, 국제캠 8,990명으로, 최종 응시율은 약 56.5%로 집계됐다. 지난해 응시율인 64.4%보다 하락한 수치다.

반면 결시율은 지난해(35.6%)보다 7.9%p 상승한 43.5%를 기록했다.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등이 속한 의약학 계열의 결시율이 50.3%로 가장 높았다. 입학처 논술우수자전형 담당자는 “문·이과 통합 선발을 처음 시행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수능점수 예측 비율이 높아지면서 응시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학교 논술우수자전형은 논술 70%, 교과 21%, 출결·봉사 9%의 반영 비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2024학년도부터 교과와 출결, 봉사 부문 없이 논술 100%로 비율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논술 시험 이외 부담 요소가 줄어들어 수시 경쟁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2023학년도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네오르네상스전형(학생부종합)은 지난 23일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했고, 다음 달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면접 평가를 진행한다. 논술·네오르네상스·지역균형전형(학생부교과)의 최종합격자는 다음 달 15일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발표 예정이다.

※ 다음 호는 1월 초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최정훈 동문
학식행사 개최

지난 달 30일 청운관 지하 2층에서 〈선배가 쏜다! 쿠쿡 가보자 Go〉 무료학식지원 행사가 진행됐다. 해당 행사는 경희후배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룹사운드 전나비의 리더 최정훈 동문(경영학과 2011)의 기부금인 대학 축제 출연료로 개최됐다.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학생 총투표, 서울 'SKETCH' 국제 '희로' 당선

강다은 기자 ekdms200202@khu.ac.kr

지난 30일 서울캠퍼스(서울캠) 개표를 끝으로 양 캠퍼스 학생총선거가 마무리됐다. 서울캠 총학생회(총학)는 [SKETCH] 선거운동본부(선본) 이재백(관광학 2020) 정후보와 채희선(행정학 2020) 부후보가 당선됐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은 [희로] 선본 문정식(중국어학 2018) 정후보와 권예성(건축공학 2018) 부후보가 당선됐다.

서울캠 학생총선거는 유권자 13,551명 중 7,360명이 투표에 참여하며 투표율 54.3%를 기록했다. 경선으로 치러진 총학 선거에서는 [SKETCH] 선본이 47.6%(3,507표), [경지] 선본이 44.4%(3,273표), 기권이 7.8%(580표)의 득표율로 [SKETCH] 선본이 당선됐다. 총학 선거구 [SKETCH] 선본 이재

백 당선자는 “13,551명의 많은 학우분들이 투표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희선 당선자는 “함께 그리다, 우리의 경희”라는 모토에 맞게 학우분들이 원하는, 바라는 경희대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매서운 눈초리로 우리를 많이 감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캠은 입후보 등록이 없었던 ▲문과대학 ▲의과대학 2개 선거구를 제외하고 학생총선거가 진행됐다. 당선된 선본은 ▲간호과학대학 [숨] 선본 ▲경영대학 [LEAD] 선본 ▲생활과학대학 [청명] 선본 ▲음악대학 [희음:HEEUMM] 선본 ▲이과대학 [이퀄(EQUAL)] 선본 ▲정경대학 [에이블(ABLE)] 선본 ▲

치과대학 [한울] 선본 ▲한 의과대학 [진] 선본 ▲호텔관광대학 [for;est] 선본 ▲행복기숙사 자치위원장 [TO:GATHER] 선본이다. ▲세화원 자치위원회의 경우 투표율 50% 미만으로 개표가 보류됐다. 선거가 없었던 ▲문과대학 ▲의과대학을 제외한 11개 선거구 모두 단선으로 진행됐다.

국제캠 학생총선거는 유권자 7,945명 중 4,440명이 투표에 참여하며 투표율 55.8%를 기록했다. 단선이었던 총학 선거에서는 [희로] 선본이 찬성 76.3%(3,390표), 반대 18.2%(806표), 기권 5.4%(242표)를 얻으며 당선됐다. 총학 선거구 [희로] 선본 문정식 당선자는 “당선이 라는 결과를 받아 매우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라며 “(희로에 대한) 기대가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애교심으로 당연하게 이어질 수 있

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예성 당선자는 “우리가 내세운 공약을 비롯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제캠퍼스의 브랜드 가치’를 위해 희로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노력하는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국제캠은 총학을 포함한 전체 11개 선거구에서 학생총선거가 진행됐다. 당선된 선본은 ▲국제대학 [KEY:KIC] 선본 ▲응용과학대학 [UP-FLY] 선본 ▲생명과학대학 [파란] 선본 ▲소프트웨어융합대학 [TAB] 선본 ▲전자정보대학 [WITH:U] 선본 ▲체육대학 [CORE] 선본 ▲예술·디자인대학 [예화] 선본 ▲공과대학 [윈스텝] 선본 ▲외국어대학 [클로버] 선본 ▲중앙동아리연합회 [중앙] 선본으로 경선인 외국어대학 선거구를 제외하면 모두 단선으로 진행됐다.